



- 충남 해양쓰레기 종합 개선대책 수립을 위한 -

도내 어업인 간담회 개최 결과보고

• 과장 : 이교식(2760) / 팀장 : 김윤섭(4754) / 담당자 : 이주호(2764)
• 도정과제 「사전 예방적 해양오염 관리기반 구축」과 연계

해양정책과
'18. 9. 13.(목)

◆ 우리 도 해양쓰레기 관리정책 추진과 관련, 현재 체계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어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

■ 개 요

- (때 · 곳) 2018. 9. 12.(수) 10:30 ~ 12:00/ 본청 302호 소회의실
- (참 석 자) 18명(道 1, 시군 9, 연구원 1, 어업인 7)
- (주요내용) 해양쓰레기 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이해 당사자에 해당하는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

■ 주요의견 및 조치사항

- (어촌계장) 수거장비 현대화 필요성, 주민 의식개선을 위한 교육 확대 등 해안쓰레기와 관련된 개선사항 제시
 - 김태성
 - ▶ 해안가는 모래와 빨로 인해 굴삭기, 4륜 구동차량 등 장비도입 필요
 - ⇒ 2019년 수거운반 장비 현대화 사업 시행
 - ▶ 김양식으로 인한 페스티로폼이 다량 배출되나, 감용기가 없어 처리 어려움
 - ⇒ 각 시군 수요조사 및 페스티로폼 감용기 보급사업 추진
 - 정래만 : 어민들 교육을 통해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의식개선 필요
 - ⇒ 어업인 대상 해양쓰레기 관련 교육 계속 추진 및 교육 의무화 등 건의
 - 김관용 : 방조제 개방시, 대량의 부유쓰레기가 유입되어 차단막 등 필요
 - ⇒ 방조제 내 쓰레기 수거 건의 및 상류지역 차단시설 설치 등 시행

○ (선주연합회장 등) 대부분 폐어구 관련 신속한 수거 및 항·포구 내 보관시설 설치 필요성, 어구관리법 신속 제정 등의 의견을 제시

- 박상우(충남보령 근해안강망협회장)

▶ 어구 투기방지 등 관리를 위해 어구실명제 도입이 필수적임

⇒ 국회 계류 중인 「어구관리법」 신속제정 건의

▶ 어선이 적재 기준대비 10배 이상의 어구를 신고 나가 투기하는 경우가 많음

⇒ 어구초과사용에 대한 단속 추진(유관기관, 수산자원과 협업)

- 홍영표(태안군 땃자망협회장)

▶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개선 필요(마대 개별지급, 대형마대 제작 등)

⇒ 수매용 마대 개별지급, 1톤 이상 대형마대 제작 등 시행지침 개선 건의

▶ 침적쓰레기 수거는 어종별로 금어기가 달라 실제 사업추진 어려움

⇒ 매년 사업대상지에 대한 사업기간 중 금어지역 지정 등 시행 건의

▶ 장기적으로 생분해성 어구에 대한 올바른 홍보와 지원으로 활성화 필요

⇒ 어업인 해양환경교육 내용에 포함 등 적극 홍보 추진(수산자원과 협업)

■ 향후계획

○ 어업인 의견을 반영한 개선 종합대책(안) 보완 : 2018. 9. 19.(수)까지

-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, 침적쓰레기 관련 등 기존사업 개선

- 어구초과사용 단속, 어업인 대상 교육 강화 추진 등

○ 개선대책에 따른 신규 사업 예산확보, 중앙부처 건의 등 추진

■ 회의사진



어업인 간담회